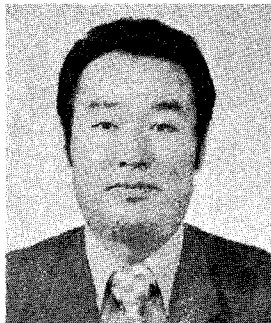


# 양계산업은 자유경쟁체제의 기틀 잡아야

양계산업은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自由競爭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 기틀이  
養鷄協會를 중심으로  
잡아져야 한다

박 영 인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본회 자문위원



한국경제는 바야흐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開放體制와 輸入自由化의 물결을 타고 있다. 그동안 정부주도적 수출촉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민경제가 상당히 발전함에 따라 금후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데에는 산업주도적 자유경쟁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전통적 생산양식을 기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내부적으로 농업과 비농업기능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외부적으로 타부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양계산업도 농업부문의 범주안에서 개방과 자유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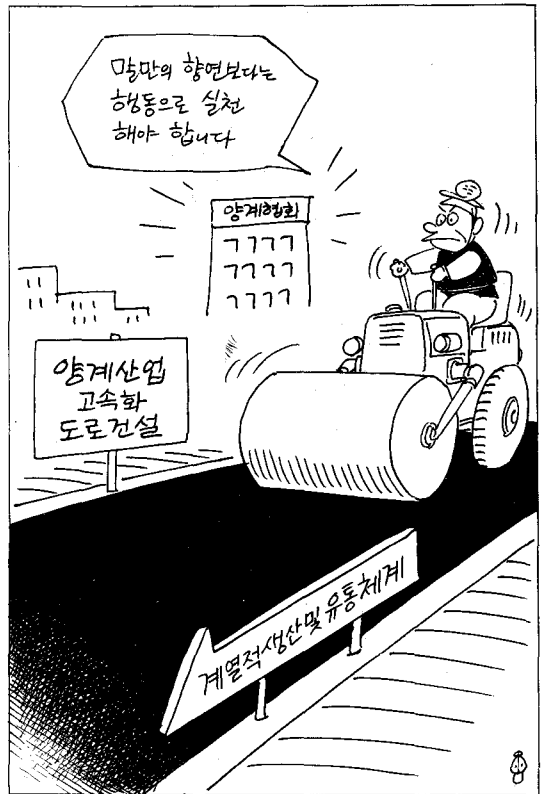
1984년에 한국양계산업이 기틀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는 自由競爭體制를 향하여 產業組織을 全面改編하는 과제라고 말하고 싶다. 양계산업은 지난 10년 가까이 축산업중에서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여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조한 계산물 소비수준과 유통과정의 체증현상으로 인한 산업전체의 發育不全症勢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전체의 종합진찰에 따른 산업각부분의 체계적 일괄 수술 및 진료 없이는 양계산업의 성장, 발전은 기약될 수 없을 것 같다. 세계경제의 움직임과 한국경제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것이 한국양계산업일진대 먼저 능률적(자유스런) 산업구조(신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활동)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한국축산업가운데 酪農, 肥肉牛, 養豚부문은 정부의 관여정도가 매우 높다. 다시말하면 이들 양축부문은 進入(entry)과 價格形成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고 있다. 그러나 養鷄부문은 정부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 즉 자유경쟁체제로 이미 개방되어 있다. 표현을 달리 한다면 누구나 닭키워서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가격 받고 팔수 있고, 양계자 재공급이나 계산물 유통 및 소비도 자유자재란 말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양계산업이 벌써 선진국

수준의 경제체제에서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보면 비능률과 투기로 뒤범벅이 된 아귀다툼의 현상이 아니던가.

양계산업은 하루빨리 진정한 의미의 自由競爭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보호 범위에서 이미 벗어난 산업인만큼 능률과 경쟁본위의 자유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육성, 안정시켜야 한다. 이 産業構造改善에 관한 문제의 제기는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해온 까닭에 이제는 그 구체적 기틀이 養鷄協會를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말만의 響宴으로 끝나버리던 과거의 양상이 시정되어 앞으로는 實行的 잔치가 떠들석하게 베풀어 졌으면 한다.

양계산업의 능률적경쟁을 위한 구조개선에는 系列的 生産 및 流通體系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올해 1984년에는 非包裝養鷄産業의 부분적 보수가 아닌, 양계산업전체에 高速化包裝道路(제열체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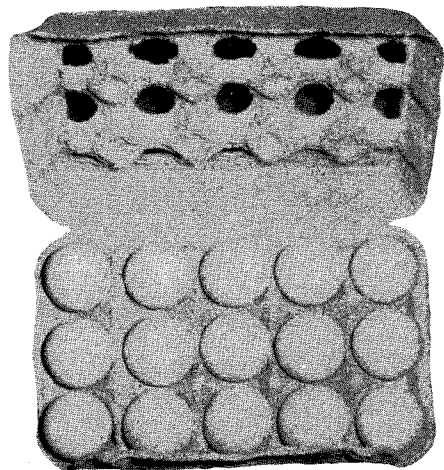


##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 (성남) 43-1042, 41-0171